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7 in E major, WAB 107
작곡가: Anton Bruckner (1824–1896)
작곡 시기: 1881년 9월 23일 착수, 1883년 9월 완성
초연: 1884년 12월 30일 라이프치히 Neues Theater, Gewandhausorchester Leipzig, 아르투르 니키슈 지휘
헌정: 바이에른 국왕 루트비히 2세
기준 판본: Anton Bruckner Sämtliche Werke, Band VII, Leopold Nowak 편집 (1954; 2003년 제 3차 개정 인쇄)

IMSLP: Symphony No.7 in E major, WAB 107 (Bruckner, Anton)

Wikipedia: Symphony No. 7 (Bruckner)

안톤 브루크너의 Symphony No. 7 in E major, WAB 107은 관현악을 위한 네 악장 교향곡이다 . Allegro moderato, Adagio, Scherzo, Finale 가 차례로 놓이며, 둘째와 넷째 악장에는 네 대의 Wagner tuba가 더해진다. 서로 독립된 1883년판과 1885년판이 있는 작품은 아니다. 1883년 완성 뒤 초연과 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자필 총보에 세부 수정이 누적됐고, 생전 초판과 현대 편집판은 그 가운데 어떤 상태를 채택할지를 달리 판단한다.

브루크너는 1881년 9월 23일 작업을 시작했다. 자필보에는 1882년 12월 29일 완성한 1악장, 같은 해 7 월부터 10월까지 쓴 스케르초, 1883년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작업한 아다지오의 날짜가 남아 있다. 피날레에는 1883년 8월과 9월의 여러 완료 표기가 공존한다. 그래서 전곡 완성 시기는 1883년 9월로 잡는다.

출판 정보와 자료

요제프 샬크와 페르디난트 뢰베는 1884년 초 새 교향곡을 두 대의 피아노로 연주했다. 샬크가 라이프치히의
니키슈에게 악보를 소개했고, 니키슈는 다섯 차례 리허설을 계획해 초연을 준비했다. 1884년 12월 30일 라이프치히 신극장에서 열린 공연은 게반트하우스 정기연주가 아니라 오페라 구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 연주는 당시 라이프치히의 극장과 연주회장을 함께 맡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담당했다. 필요한 Wagner tuba는 호른으로 대신했다. 이듬해 3월 뮌헨에서 헤르만 레비가 지휘한 공연까지 성공하면서 작품은 브루크너의 국제적 명성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자필 총보 Mus.Hs. 19479/1–3 은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 보존돼 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 자필보 가운데
실제 초판 판각 원고로 쓰인 유일한 자료다. 1883년 완성 뒤 1885년 봄까지 작곡가와 협력자들의 수정이 같은 악보에 겹쳐 들어갔기 때문에, 지워진 초기 상태와 출판 직전 상태를 단순한 두 판본으로 나누기 어렵다.

초판은 1885년 12월 빈의 Albert J. Gutmann에서 판번호 A.J.G. 576 으로 출판됐다. 친구들이 출판 비용을 모았고, 브루크너는 바그너의 후원자였던 바이에른 국왕 루트비히 2세에게 작품을 헌정했다. 자필보를 판각 원고로 삼았고 작곡가가 출판을 감독했다는 점에서 이 초판은 최종 텍스트를 정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자료다.

Robert Haas의 1944년 전집판은 주변 인물의 영향을 걷어 내기 위해 지워진 이전 상태를 되살렸다. Leopold Nowak의 1954년 판은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 남은 후기 자필 상태를 중시했고, 2003년 Rüdiger Bornhöft의 비평보고와 함께 제 3개정 인쇄가 나왔다. 이 글은 현재 출판된 MWV 전집의 Nowak판을 기준으로 삼는다.

Benjamin-Gunnar Cohrs가 2015년에 낸 판은 Bruckner Edition Wien의 별도 Anton Bruckner Urtext Gesamtausgabe 첫 권이다. MWV·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국제 브루크너 협회가 2016년부터 펴내는 New Anton Bruckner Complete Edition과는 다른 사업이다. Paul Hawkshaw가 편집하는 신전집 7번은 자필에 남은 필적과 이전 판에 빠진 박자 ·속도 변화를 다시 검토하고 있으나, MWV의 현행 출판 목록에는 아직 정식 총보가 올라와 있지 않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65분이다. 1악장과 2악장은 각각 20분 안팎이다. 스케르초는 약 911분, 피날레는 약 1114분 걸린다. Cohrs판 출판사는 60분을 제시하고 실제 녹음은 60분대 초반부터 70분 가까이까지 벌어진다. 첫 주제의 템포, 아다지오의 감속과 정점, 피날레의 속도 관계에 따라 총시간이 달라진다.

편성

목관: 2 flutes, 2 oboes, 2 clarinets in A, 2 bassoons
금관: 4 horns in F, 2 tenor Wagner tubas in B♭, 2 bass Wagner tubas in F, 3 trumpets in F,
3 trombones, contrabass tuba
타악기: timpani, triangle, cymbals
현악: strings

Wagner tubas와 contrabass tuba는 둘째 ·넷째 악장에만 나온다. Nowak판의 triangle과 cymbals는 둘째 악장의 C장조 정점 한 곳에서만 사용된다. 초연에서는 Wagner tuba를 구할 수 없어 호른으로 대신했으므로 , 오늘날의 표준 편성은 초연 당일의 실제 악기 구성과 다르다.

네 악장의 구성

I. Allegro moderato

E장조의 첫 악장은 세 주제군을 갖는 소나타 설계다. 현악의 트레몰로 위에서 호른과 첼로가 첫 선율을 시작한다. 선율은 한 마디씩 끊어 세우기보다 긴 단위로 이어지고, 뒤이어 목관과 현악이 더 차분한 제 2주제를 제시한다. 발전부와 재현부를 거친 뒤 코다는 첫 주제의 E장조를 크게 확정한다.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는 첫 주제를 1분 이상 이어지는 긴 선으로 보았다. 시작할 때부터 끝을 내다봐야 하며, 너무 느리게 출발하면 악보에서 ruhiger 로 지시한 제 2주제를 더 고요하게 만들 여지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cresc. 가 보이자마자 음량을 키우기보다 정점까지 남은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선율의 길이와 두 주제 사이의 상대적 속도를 함께 맞춰야 하는 이유다.

II. Adagio. Sehr feierlich und sehr langsam

C♯단조의 아다지오는 서로 다른 두 재료가 교대로 돌아오며 변주되는 악장이다. Wagner tuba와 저음 금관이 첫 주제를 내고, 현악이 4/4박자의 선율로 응답한다. 반복될 때마다 음역과 편성이 넓어져 C장조 정점에 이른 뒤, C♯장조의 조용한 끝맺음으로 돌아간다.

브루크너는 이 악장을 쓰던 중인 1883년 2월 13일 바그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소식을 들은 뒤 아다지오 전체를 썼다는 익숙한 이야기는 작곡 날짜와 맞지 않는다. 훗날 브루크너는 악장 말미의 Trauer-Musik 를 바그너의 죽음과 연결했다. 따라서 장송의 의미는 작곡가의 회고에 근거하지만 악장 전체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C장조 정점의 팀파니 롤, 트라이앵글 롤, 심벌즈 한 번은 최초 자필 층에 없으며 별도 오선지 조각에 가필됐다. 1885년 1월 요제프 샬크의 편지는 자신들이 원한 효과를 니키슈가 관철했음을 보여 준다. 타악 음표는
브루크너의 필적으로 보지만, 같은 종이에 적힌 gilt nicht, 곧 ‘유효하지 않음 ’이라는 취소 문구가 작곡가의 손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Haas판은 이 타악기를 빼고 Nowak판은 넣는다. 그러므로 타악기 유무는 효과를 임의로 보태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어느 편집 판단과 전승을 따르는지 밝혀야 한다.

III. Scherzo. Sehr schnell — Trio. Etwas langsamer

A단조의 스케르초는 트럼펫 신호와 현악의 반복 리듬으로 시작한다. F장조의 트리오에서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현악과 목관의 선율을 앞세운다. 트리오 뒤에는 스케르초가 다시 돌아오므로 형식은 Scherzo–Trio–Scherzo다. 아다지오 뒤에서 무조건 속도를 올리는 것보다 Sehr schnell 의 기본 박동과 반복되는 악센트를 함께 유지해야 앞뒤 두 번의 스케르초가 같은 골격으로 들린다.

IV. Finale. Bewegt, doch nicht schnell

E장조의 피날레는 세 주제군을 쓰는 소나타 원리를 앞선 1악장보다 짧게 압축한다. 제시부의 재료는
재현부에서 거꾸로 돌아오며, 코다에서는 1악장 첫 주제가 다시 나타나 전곡의 시작과 끝을 연결한다. 표제의 Bewegt, doch nicht schnell 은 움직임을 가지되 빠르지는 않게 하라는 뜻이다. 앞선 악장의 규모를 의식해 서두르면 세 주제의 귀환과 첫 주제의 마지막 도착이 한 덩어리로 몰린다.

연주에서 갈리는 선택

연주마다 가장 쉽게 식별되는 차이는 아다지오 정점의 타악기다. Haas판을 따르는 연주는 팀파니 ·트라이앵글 · 심벌즈를 생략하고, Nowak판과 Cohrs판을 따르는 연주는 이를 포함한다. 가필 음표의 필적과 취소 표기의
필적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어느 한쪽을 작곡가의 의도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부르기는 어렵다. 연주와 녹음을 비교할 때에는 타악기의 유무뿐 아니라 사용한 판본과 별도 수정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템포 선택은 악장 안의 상대적 관계에서 드러난다. 블롬슈테트의 설명처럼 1악장 첫 주제와 ruhiger 제 2주제 사이에 실제 차이가 있어야 하고, 피날레도 Bewegt 와 nicht schnell 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Cohrs는

브루크너 연주 전반에서 빠른 대목을 지나치게 몰고 느린 대목을 무겁게 끄는 관행을 지적했다. 홀의 크기와 편성에 따라 절대 속도는 달라져도, 앞뒤 지시가 요구하는 비례는 악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관의 출력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은 현대 금관 악기와 연주자의 음량이 브루크너
시대보다 강하므로 악보의 ff 를 무조건 극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악장과 4악장의 금관 도착점과
아다지오 정점에서 현악과 목관의 진행이 가려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리를 작게 만들라는 뜻은 아니다. 셈여림의 정점에서도 다른 성부가 진행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으라는 말이다.

주요 레코딩

Oskar Fried / Berlin State Opera Orchestra — Polydor, 1924: 완전한 브루크너
교향곡으로는 최초의 상업 녹음이다. 1885년 초판 계통으로 연주한 초기 전통과 유동적인 템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복각판은 피치가 높거나 피날레 708~716마디가 잘려 있으므로 전곡 수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ugen Jochum / Berliner Philharmoniker — Deutsche Grammophon, 1964:
노래하는 현악과 유연한 템포 변화를 보여 주는 전통적 비교본이다 . 반면 블롬슈테트는 첫 주제를 너무 느리게 잡아 ruhiger 제 2주제와의 관계가 뒤집힌 사례로 이 연주를 들었다. 장점과 템포 문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다.
Herbert von Karajan / Wiener Philharmoniker — Deutsche Grammophon, 1989: Haas판을 사용한 카라얀의 마지막 스튜디오 녹음이다. 넓은 진행과 혼합된 관현악 음향, 타악기
없는 아다지오를 들려주며, 음색과 장기적인 고조를 중시한 전통의 대표 자료다.
Nikolaus Harnoncourt / Wiener Philharmoniker — Teldec, 1999: Haas판을 따라
아다지오 정점의 타악기를 생략한다. 대향 배치한 바이올린과 약 60분의 빠르고 투명한 진행은
카라얀의 넓고 혼합된 음향과 뚜렷이 대비된다.
Simon Rattle / London Symphony Orchestra — LSO Live, 2022 녹음 ·2023 발매: Cohrs의 A07 판으로 만든 세계 최초 녹음이다. 아다지오 타악기를 포함하며, 자필과 1885년
초판을 다시 대조한 현대 판본을 실제 음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자료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 Wien, Symphony No. 7 및 New Anton Bruckner Complete

Edition — Nowak판, 자필 ·초판 관계, 신전집 현황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Bruckner Digital — 자필 총보 Mus.Hs. 19479/1–3

Paul Hawkshaw의 신전집 7번 해설 및 MWV 출판사 기사 — 자필의 여러 필적, 타악 가필, 새
판본의 편집 원칙

Berliner Philharmoniker 작품 해설 및 Arthur Nikisch와 7번 — 악장 표기, 소요 시간, 초연과
리허설

Library of Congress, Bruckner Letters — 초연의 악기 대체, 초기 수용, 출판과 헌정

Schott, Cohrs 2015판 및 Cohrs 인터뷰 — 별도 우어텍스트판과 판본 ·연주 원칙

Herbert Blomstedt 인터뷰 및 Christian Thielemann 인터뷰 — 첫 주제의 템포 비례와 현대 금관의 균형

- Oskar Fried □□ □□ , Karajan 1989, Harnoncourt 1999, Rattle 2023 — □□ □□□ □□□ □□ □□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19 UTC by □□□
Updated 2026-10-04 10:05:19 UTC by □□□